

코로나19의 역발상... 제주 한달살이 ‘꿈틀’

서울·대구 등 확진자 잇따르며 ‘안전지대’로 이주 학생·학부모 관심... 제주선 과수원 생활 진풍경도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지역에 걸쭉 제주지역이 안전지대로 인식되면서 ‘제주 한달살이’가 다시 꿈틀대고 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생과 아이를 돌보는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주에서 임시 거주할 빈집이나 호텔 등을 물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A씨(55·서울)는 “그나마 제주가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데다 개학까지 시간도 많이 남아 제주에 사는 지인을 통해 아이들과 애들 엄마가 잠시 동안 머무를 수 있는 집을 구하고 있다”며 “제주시 애월쪽의 집을 임대할 생각인데, 사태가 완화되고 개학일이 다가올 때까지 만이라도 마음 놓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주행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일부 반감도 적지 않다. 최근 2명의 확진자가 제주를 다녀가면서 불안감이 확산, 지난 6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제주도 한달살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경우, 야외 활동을 통한 감염 확산이 적다”는 이유로 제주지역 골프장에 머물면서 낮에는 운동하고 밤에는 숙소에서 지내는 골프족들도 더러 있다. 운동하고 숙식을 모두 숙소에서 해결하고 있는 셈이다.

B씨(58·제주시 이도동)는 “최근 골프장에서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골

프객들을 만났는데, 제주가 안전지대라는 인식에 코로나19 사태가 급 확산된 시점인 지난달 말부터 골프 호텔을 2주가량 임대해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부 제주 골프객들은 타지역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는 제주지역 일부 학부모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역 특성상 과수원의 창고에 딸린 방에서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가 아닌 안전상 ‘자체격리’하는 모습이다.

C씨(48·제주시 노형동)는 “코로나19 감염 걱정도 없고,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이번 기회에 추억도 남길 겸해서 아이들과 애들 엄마가 2주째 저희 아버지 소유의 과수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퇴근하고 가끔 부식품을 챙겨 갖다 주고 있는데 큰 불편이나 불평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학 시기가 다가오면 집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했다.

이처럼 전국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역발상을 통한 저마다의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진풍경을 낚고 있다.

한편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 이주 열풍이 시작된 2011년 연중 순유입 인구는 2343명이다. 이후 2016년에는 1만4632명이 순유입되며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7년 1만4005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으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화사한 색채로 발길 유혹하는 튤립 16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공원에 튤립이 화사한 꽃을 피워 올리며 남국의 봄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교육청 ‘임용시험’ 신뢰 회복할 수 있을까

제주도감사위·도교육청, 지난 9일부터 감사 돌입
“5년치 자체 감사지만 의혹 없도록 두루 살필 것”

속보=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고했던 대로(본보 지난달 26일자 사회면 ‘이석문 교육감 임용시험 합격자 반복 사태 사과’) 지난 10년간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2020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합격자를 처음 뒤바뀔 발표한지 한 달 만이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4월 7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실지감사를 진행한 다. 감사 범위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최근 5년간 초등과 중등교사, 교육전문직 임용시험 등 3개 영역이다. 나머지 5년(2011~2015년도)은 제주도교육청이 맡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감사는 이석문 교육감이 임용시험 합격자 반복사태를 공식 사과하며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당시 이 교육감은 “제주도감사위 감사와 교육청 특정 감사를 통해 지난 10년의 교육공무원 임용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이 밝힌 대로 도교육청은 감사 범위를 10년으로 정하고 도감사위와 협의해 왔다. 애초에는 모든 기간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지만 한정된 감사 인력, 연간 계획 등을 고려해 감사위에 3년치만 맡기고,

나머지 7년간을 자체 감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런데 내부 감사 비중이 클 경우 임용시험 합격자 반복으로 불거진 의혹을 털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에 5년 치씩 감사하기로 최종 협의했다.

감사에선 그간의 임용시험 접수가 올바르게 입력되고 제대로 반영됐는지 가 중점 확인된다. 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넘겨받는 1차 시험 결과와 2차 시험인 면접, 교수·학습과정안 작성, 예체능 과목 실기 점수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임용시험 전반의 공정성 제고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 일정대로 감사가 진행되면 오는 5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지은기자

PC방·게임장·노래연습장 방역특별관리

제주도, 예방활동 등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특별관리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관리는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재연장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PC방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3일 ‘일제 방역소독의 날’ 시행 첫날 PC방 37개소, 게임장 10개소, 노래연습장 68개소 등 다중이용시설 1만9000여 곳에 대한 방역을 진행했다.

아울러 제주도는 다중이용시설의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범도민적인 방역소독 생활화를 위한 홍보도 벌일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코로나 확진자 접촉자 모두 격리해제

현재 남아 있는 50명은 타 지역에서 접촉 격리중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과 접촉한 자가격리자가 모두 일상으로 돌아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0시 기준 제주 3번 확진자(48·여)와 4번 확진자(46·남)의 모든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서 해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자가격리자 모두 무증상이거나 음성판정을 받는 등 특이 사항이 없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자가격리자는 총 297명으로 이중 247명이 격리에서 해제됐다. 격리 중인 50명 중 48명은 타 지역 확진자 3명에 의한 접촉자이며, 나머지 2명은 타 지역에서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실거주지가 제주도인 관계로 도내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경우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현재 자가격리자들의 원활한 협조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가 유지되고 있다”며 “격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명 가운데 2번 확진자(22·여·호텔 직원)와 3번 확진자는 각각 지난 7일과 15일 퇴원했으며, 1번 확진자(22·해군 상병)와 4번 확진자(46·남)는 아직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송은범기자

“교육부·교육청 생계 지원대책 제각각”

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 성명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이 내놓은 방학중비근무자(교육공무직)에 대한 생계 지원 방안이 달라 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공문을 통해 국립학교 소속 방학중비근무자에게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출근하도록 했다. 이와 달리 제주도교육청은 하루 전인 12일 교육청 소속 방학중비근무자에게 이달 16일부터 20일

사이에 2일간 근무하도록 했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이 기간 근무하지 않는 방학중비근무자의 임금 일부를 추가 지급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소속에 따라 출근 일수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각각 생계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달라 또다른 차별을 낳았다”며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대책을 제시하도록 노력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 제주도 해명 사실과 달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제주도가 송악산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전문기관의 의견을 누락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사실과 다

르다”고 반박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DI)의 검토 의견 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우리가 지적한 KEDI의 핵심 검토 의견이 누락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성민기자

40년
전통
연구
개발
창업자

대한민국 대표방수제 **친환경 칠만표방수제** 누구나 칠만하면 장기간 100% 방수

KCC 페인트 제주대리점
컴퓨터 자동시스템(조색기) 구비

강력접착방수제

특징
○ 강한 접착력은 들뜸이 없고 부식이 안돼 장기간 미관유지 (시간절약, 비용절약)
○ 단열효과로 집안이 쾌적하다

용도
○ 드라이비트 및 콘크리트외벽 (주택, 아파트, 빌라, 펜션, 호텔, 상가 등)
○ 타일면 ○ 벽돌면
○ 스톤면

※세 찬 비바람과 비가 자주오는 제주 주택에, 특히 드라이비트 외벽에 참 좋습니다.

드라이비트벽: 성지요양원

싱글 지붕용 탄성도막방수제

노형 위덕스빌라 12차, 미전빌라

자외선에 쏘(부식)아 있는 싱글 지붕에 칠하면 100% 방수되고 단단한 새 지붕으로 바뀝니다.

최고급 벽난로 판매

○ 100% 스텐연통 설치
○ 무동력 펠릿+화목겸용

조천면 대율리 가정집 설치

○ 초기점화 30초내
○ 종류: 장작용, 정원용, 캠핑용 벽난로

★ 주요생산물 : 녹/회색 접착방수제, 황토방수제, 균열보수제, 모체강화제, 수용성점투성방수제(발수제), 타일줄눈방수제, 결로방수제, 고농축완결방수제, 급결지수제, 우레탄류

방수 백화점

금강종합건설 **KCC 페인트** · 칠만표방수제 · (주)대화정밀 · 현대공구 · 난로세상

제주대리점 T. 752-8209, 758-8209, F. 753-8209 **※모방품주의바랍니다.**